



## 會長 就任에 즈음하여

### — 病協을 政策建議機關으로 發展 —

大韓病院協會 會長 白 樂 院

今般 大韓病院協會 第25次 定期總會에서 不肖 本人이 第22代 會長으로 選出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 하면서 먼저 會員病院 여러분께 깊은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病院界를 둘러싸고 있는 昨今の 醫療週邊情勢가 여러가지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狀況을 直視하면서, 會長으로서의 所任과 責務가 너무나 莫重함을 痛感하게 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非現實的인 醫療保險酬價體系, 病院의 公益性을 外面하고 있는 不合理한 稅制 및 公課金, 그리고 各種 醫療原價의 上昇等으로 因하여 病院經營은 實로 어려운 局面에 逢着해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 憂慮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가장 어려운 時期에 會長職을 맡게 되어 重責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 걱정됩니다.

다만, 國民醫療가 있는限 病院이 있고, 病院이 存在하는限 病協은 永統되어야 할 것이므로 會長職은 누가 맡더라도 宿命的으로 避할 수 없으며오로지 會員病院을 爲해 犧牲奉仕 해야만 하는 重要한 자리라고 自負하면서, 스스로 일하는 보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돌이켜 보면 1959年 病協이 創立된 以來 四半世紀동안 歷代 會長님들의 卓越한 指導力과 會員病院의 積極的인 參與와 協力에 依해 協會 成長에 長足의 發展이 있었다고 評價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회는 앞으로 協會 自體의 發展보다 次元을 달리해서 우리 나라의 病院 發展과 關聯된 모든 政策을 研究立案하여 政府에 建議하는 名実共히 『政策建議團體』로 昇華시켰으면 하는 것이 本人의 所望입니다.

그것은 『病院이 發展되어야만이 國民에게 보다 좋은 診療를 提供할 수 있다』는 平凡한 眞理를 본회가 바로 先導的인 役割로 實現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協會가 會員病院 뿐만아니라 國民의 편에 서서 恒常 公正하고 健實한 正論으로 政策을 立案하려면 調査研究機能이 보다 強化되어야 할 것이며, 建議된 政策이 한낱 建議에 그치지 않고 政府當局에 依해 受容되려면 우리 스스로의 姿勢를 올바르게 가다듬어 굳게 團合된 病院界의 힘이 새롭게 認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病院人 모두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國民醫療 向上을 爲한 참되고 眞摯한 努力이 함께 하지 않는限 아무도 우리의 主張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過去 어느 때보다도 우리 病院人의 새로운 覺醒과 團結이 더욱 더 要望되고 있는 所以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病院人은 醫師 뿐만아니라 看護員, 藥師, 各種 醫療技士, 醫務記錄士, 營養士, 醫療施設 및 裝備의 整備補修要員과 行政要員等 많은 專門職種의 사람들로 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회의 會員資格도 病院에 從事하는 모든 職種의 사람들이 參與할 수 있도록 門戶 開放이 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本人은 앞으로 會長으로 在任하는 동안 對外的으로 有関機關과의 紐帶와 協調를 더욱 敦篤히 하면서 특히 中小規模病院의 苦衷을 解消하는데 最善의 努力을 傾注함은 勿論 病院標準化審査 및 病院 信任業務의 改善發展을 推進함과 同時에 對內的으로는 會館建立, 自體弘報手段 開發, 病院管理學會 活性化 및 事務職員의 資質 向上等에 力點을 두고 事業을 展開해 나갈 覺悟입니다.

아무쪼록 全國 會員病院 여러분의 積極的인 協助와 聲援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난 4年半동안 본회의 育成發展과 會員病院의 權益保護를 爲해 누구보다도 獻身的으로 犧牲 奉仕하신 趙雲海 前會長님의 勞苦와 業績에 對해서 全國 會員病院과 더불어 높은 致賀와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